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소식지

DKUMC 뉴스레터

웹페이지: www.dkumc.org

제4권 10호 2014년 10월 5일 MONTHLY NEWSLETTER OF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3회를 맞는 2014년 선교헌금 모금을 위한 한국음식바자에 즈음하여"

김대룡 권사

올해 10월 25일,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선교의 꿈을 위한 델라워에한인감리교회 선교헌금 모금 한국음식바자(Korean Food Festival)가 열립니다. 올해는 벌써 3회째입니다. 이 전의 두번까지는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에서 시도해 보지 못한 것이어서 힘들었으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신 하나님의 도움심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까지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우리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획해주시고 준비에서부터 그 날 행사까지 뒤에서 앞에서 동행하여 주셨음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던 이 큰 바자행사를 두번이나 잘 해내고 그 결실로 얻은 선교헌금으로 단기 선교지에 더 많은 선교헌금으로, 더 많은 선교인원을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티에 선교로 나간 우리 선교팀이 우리가 함께 마련했던 선교헌금의 도움으로 더 잘 준비되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 목장의 선교지에도 여러 모양의 선교사역에 매칭 펀드로 적극 선교에 동참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이 행사가 하나님이 기쁘하시는 일임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 우리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과 이웃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심을 믿습니다. 이 행사를 위한 준비에서부터 행사를 끝내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를 위해 많은 사역의 손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이 이 모든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며 이끌어 주시며 이 한국음식바자 준비위원회에 임원회장님을 위시하여 평신도대표, 재정위원장, 재단이사장, 각 사역회장, 그리고 남 여 선교회장들이 한마음 한몸이 되어 전체 행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누어지고 있으며 하나 둘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두분의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홍보와 특별행사 준비가 착착 준비되어가고 있으며 기타 각 분야에서는 책임자를 중심으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목장은 준비해야할 음식들을 이미 각 목장의 의사에 따라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목녀를 중심으로 하나 둘 씩 준비되어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목장의 음식준비로 또는 각 준비 분야에 자원봉사로 함께 참여하여 주님이 기쁘하시는 이 행사에 주인이 되어 올해 한국음식바자를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행사가 올해는 더욱 부드럽고 훌륭하게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 흡족해하는 행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우리의 준비와 모든 모임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1) 주님이 주신 말씀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의 명령에 따라 선교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최고 명령인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저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화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참으로 귀한 이 행사 기간동안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잘못은 감싸주며, 잘하면 칭찬하고, 자신이 열심히 한 사역들의 공로는 서로에게 돌리며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칭찬할만한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3)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임과 준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물질로 봉사한 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각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10)"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좇아 각자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송종남 목사

담임목사 칼럼

"기쁘게, 행복하게, 자원해"

벌써 또 다시 10월입니다.
우리교회의 10월은 특별한 달로 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교인 선교바자가 들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벌써 선교 바자를 시작한지 3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선교를 위해 '우리도 한번 해 보자' 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했었는데, 세상 말로 '대박' 이 났었고, 그 다음해에는 첫해의 성공이 또 이어질 수 있을까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걱정이 얼마나 쓸모없는 기우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교회 바자회는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습니다. 미국 분들을 가게 같은 데서 만나면 '바자회 언제 하느냐'고 시시때때로 묻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바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신나게, 잘 하느냐'고 가르쳐 달라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를 합하고, 힘을 합하고, 시간을 합하고, 물질을 합하고, 노력을 합해야하는 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몸을 드려야 하는 달입니다. 총 여선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공동 음식(불고기, 김치, 만두) 재료비도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또 각 목장별로 만드는 음식도 목장에서 다 감당해야 합니다. 티켓도 팔아야 하고,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몸으로 뛰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월 달에는 어디 가지도 않고 또 손님도 10월에는 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명령하신 일들을 백성들이 감당 할 때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 할 때도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과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원인 '선교'를 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신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열악한 선교지에서 평생을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은 거의 자비로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수 없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에 가서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년을 살아오면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감동받고, 결단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는 무엇인지요?
선교바자는 이미 우리가 두 번을 잘 치루어 내서 아시겠지만, 어떤 한부서, 개인 몇몇이 이루어내는 사역이 아닙니다. 어린 꼬마들로부터 청소년부, 청년부... 연세드신 요한 목장 어른들까지 델라웨어 교인, 모두 함께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힘과 몸과 시간을 합해서 이루어내는 사역입니다.
어린이들은 울지 않고 잘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돕는 것이고, 직접 몸으로 일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로, 마음으로, 격려의 말 한마디로도 힘을 모아 주실 수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이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일도 중요하지만, 목원들끼리 더욱 친해지고 알아가는 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10월, 우리 델라웨어 선도님들의 거룩한 열정을 다시한번 기대합니다.
선교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한번 태워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열정을 또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쁘게, 행복하게, 자원해서, 2014년 전교인 선교바자를 아름답게 치루어 내길 소원합니다.
일의 보람과 기쁨은 관망자가 아니라, 동참했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받은 말씀" - 2014년 부흥성회

올해, 우리교회 가을철 부흥회는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의 한상신 목사님을 모시고 9월5일부터 7일까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흥강사를 소개할 때에, 많은 것으로 이분을 소개할 수 있지만 한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라고 소개했는데 진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때로는 재밌는 예화와 유머를 섞여가며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언중유골과도 같이 우리교회, 아니 나를 향해주시는 주님의 따끔한 견책의 말씀이었습니다.
'겸손함과 순종' (빌립보서2장)이야말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이라는 말씀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이었습니다.
부흥강사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우리교회가 잘 되길, 우리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기쁜 교회,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그리운 교회, 궁금한 교회,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함께 일하고 싶은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하는 겸손은 무엇이고 순종해야할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도 큐티를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부흥성회를 통해 '주신 말씀과 받은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조금

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언젠가는 저에게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이라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주신 말씀과 받은 말씀이 삶의 말씀이 되도록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부흥성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사람)

새 가족 환영회를 마치며

새 교우회부장, 박숙현집사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 133:1)

지난 9월20일 토요일 오후 5시, 가을 분위기로 단장된 친교실에서는 2014 후반기 새 가족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날 모임에는 올 후반기에 등록한 여러 가정들과,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해 참석한 임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는 한 식구임을 공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화목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까지도 참여해 호응해 준 여러 새 가족들은 "한 식구(食口)", "한 솥 밥을 먹는 우리" 가 됨을 축하한다며 전한 송종남 목사님의 환영사에 이어 간단한 교회역사, 그리고 좋은, 행복한 우리교회임을 자랑하는 임원들의 축하 메시지들을 들으며 환한 미소와 더불어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에 대한 기대로 가슴 벅차했습니다. 또한 "환영해 주시는 교회에 감사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느껴 가슴 뭉클하다" 는 마음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저녁과 함께 찬양과 친교를 나누는 즐거운 얼굴들 속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란 시편 133: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신앙의 공동체, 이 순례의 동행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번 새 가족환영회를 준비하며 한 영혼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로지 복음의 사도로 길을 걸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삶의 목적이 달라진 바울의 삶에는 오로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5주년을 보내며,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는 새 식구들을 맞이할 때마다, 새 가족환영회가 해마다 몇 번 열리는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한 식구가 되신 새 가족 여러분과 맞이하는 DKUMC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그 소명의 길을 뜨겁게 손잡고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2014 전교회 야유회를 마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장기영 집사 (남선교회 부장)

9월 21일 주일예배를 마치고, 야유회 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근처 Brandywine Springs Park에서 전교인 야유회를 했습니다. 그 날을 위해 예약한 파빌리언에 준비해 가져온 맛있는 불고기와 꽁치를 불을 붙여 굽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열심히 교우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저 즐겁고 유쾌하기만 했습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공원으로 들어오는 교우들의 손에는 함께 나눠 먹고자 하는 맛난 반찬이 들려있었고, 야유회를 위한 한껏 멋을 낸 가벼운 옷차림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야유회 하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날씨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였고, 시원한 초가을 바람과 자연을 벗 삼아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 후 게임 통해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가 서로를 더 친근하게 알아가는 즐겁고 재미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순서의 야유회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주일 일정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애써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야유회 준비과정과 진행을 통해 부족함 많은 저에게 이 큰일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유회에 참석하여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든든한 남선교회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학교

송나경 집사 (아름다운 학교 교장)

새 학기 새 교우 새 교재.....

이런 단어는 항상 기다림과 설레임을 떠오르게 합니다.

9월 11일 목요일, 아름다운 학교의 개학날은 매주 보는 친숙한 얼굴들이 아닌 긴 여름방학을 기다린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날이었고 어느 학교보다도 반갑고 활기찬 등교를 기다려온 학생들의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시작으로 스트레칭, 지칠 줄 모르는 흥겨운 율동으로 시간이 모자라는 체조반, 손수 만든 작품으로 기뻐하시는 Craft반, 학구열이 뜨거운 컴퓨터반, 서예와 동양화로 심취된 미술반, 처음으로 호흡과 발성까지 신경 쓰며 찬양해 보는 음악반, 새로 개설될 노래반, 한 땀 한 땀 바느질 솜씨를 자랑하는 사랑방 같은 퀼트반, 건강 지식을 알려 주는 건강 세미나까지 오전 시간만으로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한 다양한 프로그램 후에는 매주 맛있고 풍성한 점심식사와 때론 아침간식까지 준비해주시어 마치 잔칫집같이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점심식사 후의 영화감상계획과 또 가을소풍으로 계획 된 단풍구경은 올 봄에 있던 뉴저지 Camden 수족관, 봄 소풍 때와 엔지 정 집사님의 초대로 Rehoboth에 갔을 때에 마냥 즐거워하시던 모습을 다시 한 번 기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이하 12명의 이상의 봉사자들의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묵묵한 헌신이 있습니다. 걱정이 앞서던 저에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선한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간섭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또 한 번 확신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28)

Feeding Stomachs: Feeding Souls - *Joseph Lillie (EM)*

From the opening prayer to the closing one the time we spent with the homeless was both eye opening and fruitful. We were so blessed to be able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ok and serve the homeless food, but even more amazing than feeding their bodies was the opportunity we had to feed their souls.
Many outreaches focus on just bringing food to the homeless, and that is good but mere food doesn't last forever. Even though we were able to meet their physical needs, we were also able to bring to the homeless something that is even better than physical food, that is Christ. Christ is the bread of life (John 6:35), and his word brings living water (John 4:10).

It was a great experience being able to meet people in their place of need and bring them what they need. Over 120 people had their bodies fed, and their souls nourished. We ask that you would pray for the homeless in their various places of need that they their needs would be met by Christ, and also that they would develop a desire to seek after Christ with all they are.

육적으로 먹이며 영적으로 먹이다.
(육신의 양식 : 영의 양식)

노숙자들을 섬기는 시간은 개회기도에서 폐회기도까지 나를 새롭게 눈을 뜨게하며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다.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섬기는 시간은 축복된 시간이었고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그들의 영적인 베고픔을 채운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경험이었다.
많은 선교 단체가 단순히 음식을 가져와서 섬기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음식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일시적일뿐 그들이 영원히 배부를수는 없다.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제공할뿐아니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겐 나눠줄 수 있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요한복음 6:35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였고 요한복음 4:10에 그리스도는 생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세상의 양식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좋은 체험이었다. 120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었고 또한 그들의 영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었다.

노숙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영육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한다.
또한 그들이 예스 그리스도를 간구하며 갈망할수 있기를 소망한다.

추천도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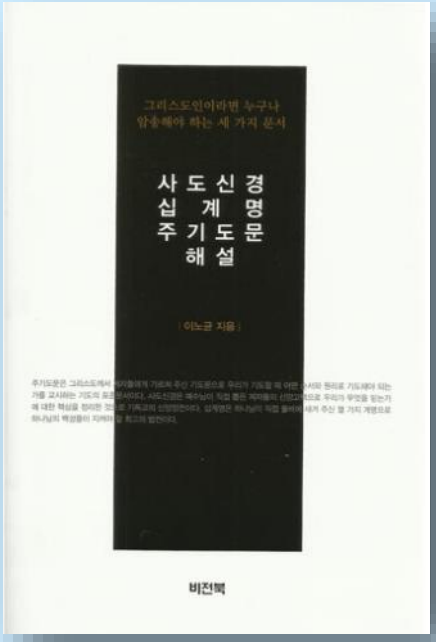
저자: 이노균

출판사: 비전북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의 신앙고백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핵심을 정리한 것으로 성경을 압축한 진수라 할 수 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 새겨 주신 열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최고의 법전이다.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순서와 원리로 기도해야 하는 가를 교시하는 기도의 표준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순서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가 앞뒤에 이 세 가지 문서를 특별히 등제하고 있다. 신앙의 정수를 쉽게 해설한 책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서술했다. 또 이 세 가지 문건을 합쳐서 해설한 것은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이도 하다. 각 문서마다 배경과 개요를 간단히 서술 했으며 또 탐구문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서부: 김상환 집사)



2014년 9월 포토갤러리

2014 부흥성회: 9/5 - 9/7

아름다운 학교 개학 - 9/11

새가족 환영회 - 9월 20일

2014 전교회 야유회 - 9월 21일

October 2014 10월의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 금요일 큐티모임	4
5 EM 연합가족예배 세계성찬주일-성만찬 목회위원회 모임	6 * 월요일 큐티모임	7	8	9	10 * 금요일 큐티모임	11
12	13 * 월요일 큐티모임 Meals on Wheels	14	15 재정위원회	16	17 * 금요일 큐티모임	18
19	20 * 월요일 큐티모임	21	22	23	24 * 금요일 큐티모임	25 선교를 위한 한국음식 바자회
26 목장 지도자훈련	27 * 월요일 큐티모임	28	29	30	31 * 금요일 큐티모임	

November 2014 - 11월의 일정

- 11월 2일(주일) -Day Light Saving Time Ends
- 11월 2일(주일): EM 연합가족예배
- 11월 17일(월) : Meals on Wheels
- 11월 22일(토): EM Coffee House
- 11월 23일(주일):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Sunday)
- 11월 30일(주일): 대강절 첫주

예배와 모임 안내

중보기도	주 일	오전 10:30-10:50
1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8:00
영어 예배	주 일	오전 9:45
2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11:00
아동부 예배	주 일	오전 11:00
청소년 예배	주 일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화 ~ 토	오전 6:00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오후 7:50
청년부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청소년부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여선교회 Q.T. 모임	월, 금요일	오전 10:00
아름다운 학교	목요일	오전 10: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17 Loveville Rd.
Hockessin, DE 19707
(302) 235-5735, Fax (302)235-5736

STAMP